정구창 공불련 회장 “수행공동체 강화”

6월 29일, 수덕사서 취임법회
진우 스님 “선명상 확산 앞장”
성지 순례, 합동수계법회 진행

예산=유재상 충청지사장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6월 20일 덕숭총림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제14대 정구창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정구청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 등 주요 내빈들의 기념촬영 모습.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제14대 회장에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취임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는 6월 20일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 황하정루에서 제14대 정구창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제30차 성지순례 및 제23차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 수덕사 승가대학장 화담 스님,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묘장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공직의 자리는 국민의 고통을 덜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보살도의 현장”이라며 “전국의 공무원 불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화합의 공동체를 이루고 청년 공직자 포교와 선명상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인사말에서 “공불련 회장 취임법회와 성지순례, 합동수계법회를 수덕사에서 봉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직 현장은 국민을 위한 보살행의 실천도량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청정한 행정이 사회를 밝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창 회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불자로서의 서원을 하나로 삼아 국민을 위한 봉사와 수행이 둘이 아님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자비와 지혜를 공직 현장에서 실천하고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행공동체를 강화하고 회원 간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며 사회봉사와 나눔 실천을 꾸준히 전개하겠다”며 “청년 공직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연합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수덕사 합창단이 축하 음성공양을 올렸으며 참석자들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불자로서의 수행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취임법회에 앞서 저녁 예불에 동참하며 신심을 다졌으며, 법회 후에는 초은 스님의 지도로 싱잉볼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직 생활 속에서 쌓인 피로와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임원 간담회에서는 조직 운영과 회원 확대, 포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연합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계사로 한 합동수계법회와 성지순례가 진행돼 불자로서의 서원을 새롭게 다지고 한국 선불교의 전통과 수행 정신을 되새겼다.

동화사, 제1기 ‘무문 출가학교’ 입재

6월 19일, 통일대불전서 고불식
‘나는 누구인가’ 화두로 9박 10일
남녀 19명 참여해 수행자 삶 체험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6월 19일 ‘제1기 무문 단기출가학교’ 고불식을 봉행하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사진은 행자 삭발식 모습.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가 6월 19일 통일대불전에서 ‘제1기 무문(無門) 단기출가학교’ 고불식을 봉행하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동화사가 주관한 이번 단기출가학교는 ‘나는 누구인가, 호국의 도량에서 무문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다. 남행자 8명과 여행자 11명 등 모두 19명이 입교해 6월 28일까지 9박 10일 동안 수행자의 삶을 체험한다.

참가자들은 입산과 함께 갈마의식과 기본습의, 삭발식을 통해 수행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사찰 청규에 따라 새벽예불과 108배 정진, 발우공양, 참선, 좌선과 포행, 운력, 삼보일배, 수계, 불교기초교리, 법문, 수행일지 작성 등 전통 승가의 일상을 그대로 경험하며 수행의 의미를 몸소 익히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으며 본래의 마음을 마주하는 수행에 초점을 맞췄다. 동화사는 참가자들이 수행자의 엄격한 생활을 경험하며 부처님 가르침과 출가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고불식에는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과 연수원장 혜문 스님,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동화사는 호국의 성지이자 수행의 본을 익힐 수 있는 도량”이라며 “진리의 문턱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서 틔운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세상 속에서 지혜의 숲으로 자라나 자신과 이웃, 사회를 밝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주지 선광 스님은 환영사에서 “이번 단기출가학교는 세속에서의 익숙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수행자의 마음으로 살아보는 소중한 인연”이라며 “청규를 성실히 지키며 수행자다운 행자 생활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소중함과 삶의 유익함을 직접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수원장 혜문 스님도 고불문을 통해 “오늘부터 잠시나마 세속의 일을 내려놓고 출가자의 옷을 입어 계율을 익히며 수행자의 길을 걷고자 한다”며 “이번 인연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어있는 참나를 만나는 뜻깊은 수행의 시간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동화사는 이번 제1기 무문 단기출가학교를 시작으로 수행과 명상을 통해 현대인들이 삶을 성찰하고 출가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세종전통문화체험관, 한국영상대와 MOU

6월 18일, 미래인재 양성에 협력
탄대 스님 “전통문화 현대적 계승”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탄대 스님)이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주현)와 손잡고 전통문화와 K-콘텐츠를 접목한 지역 인재 양성과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과 한국영상대학교는 6월 18일 세종 한국영상대학교 본관 9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과 전통문화 기반 콘텐츠 개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평생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교류, 사업 및 프로그램 공동 홍보, 창업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탄대 스님은 인사말에서 “국내외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를 접하면서 영상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젊은 세대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희 행정부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의 소중한 전통문화 자산을 미래 성장동력인 K-콘텐츠와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이 보유한 전통문화 자원과 한국영상대학교의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역량이 만나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 교육모델과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주 문빈정사, 지장전·봉안당 기공

6월 21일, 지진법회 및 기공식
1600평 확보…연말 준공 목표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공 스님)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지장전 및 봉안당 조성불사의 첫 삽을 떴다.

문빈정사는 6월 21일 ‘지장전 및 봉안당 조성 지진법회 및 기공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불사에 돌입했다.

주지 법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착공하는 지장전은 지장보살님의 대원력 아래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남겨진 가족들이 부모 은혜와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참회의 도량이자 효행의 도량”이라며 “누구나 편안하게 참배하고 기도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열린 수행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실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문빈정사는 무등산에 들어선 첫 사찰로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불사 하나하나가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불자들의 원력을 담아내는 일인 만큼 문빈정사가 민주와 신행, 포교의 도량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격려사에 나선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과거 이곳은 소박한 도량이었지만 지금은 광주를 대표하는 사찰로 성장했다”며 “법공 스님의 원력으로 또 한 번 큰 불사가 시작된 만큼 지장전 불사가 원만히 성취돼 세세생생 이어지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과보고에 나선 김영관 신도회장은 “사찰 주변 핵심 부지 약 1600여 평을 확보해 수행환경 보존과 향후 주차장 및 신도 편의시설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장전 및 봉안당은 연면적 116평 규모의 지상 2층 한옥형 건축물로 조성되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제5회 사랑나눔 한마당

6월 19일, 장애인·어르신 150명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와 쌍봉사 반찬나눔봉사단(회장 김진옥)은 6월 19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5회 사랑나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함께 걸어요’를 주제로 진안군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꿈드레, 보듬 청소년 복지관,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소속 장애인과 어르신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쌍봉사 반찬나눔 봉사단, 신도회 자원봉사자들은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봉사자들과 연대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폈다. 특히 진안군 성당 뒤 인보의 집 마티아 수녀 일행도 자리를 함께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서로를 위하고 돕는 삶이 곧 불교의 실천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자리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계속 확산해가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다시 한 번 진안군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는 8월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는 만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사람이 찾아와 머무는 따뜻한 진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부 어울림 공연에서는 꿈드레장애인협회 김규온 회원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가 시작됐다. 이어 김춘심 시각장애인협회 지회장, 오태문·김현수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회원 등이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선보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괴산 공림사, 탄성 대종사 법향집 봉정

6월 20일, 26주기 추모다례재



조계종 제27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진공당 탄성 대종사의 수행 정신과 자비행을 기리는 추모다례재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법향집이 봉정됐다.

괴산 공림사(주지 원호 스님)는 6월 20일 진공당 탄성대종사 26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생애와 수행 정신을 담은 법향집 〈자비와 인욕의 수행자〉를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는 추모사에서 “탄성 대종사는 한국불교 교단 정화 이후 혼란한 시대에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열어주신 큰 어른”이라며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호흡한 살아있는 보살이었다”고 회고했다.

문도대표 인사말에 나선 도공 스님은 “은사 스님께서 남기신 수행과 전법의 자취가 잊히지 않도록 법향집 〈자비와 인욕의 수행자〉를 발간했다”며 “큰스님의 가르침이 앞으로도 한국불교와 후학들의 정진 속에 이어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탄성 스님은 제27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공림사 중창과 태전사 창건, 후학 양성, 포교 활동에 힘쓰며 한국불교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갑룡장학회, 장학금 1000만원 기탁

6월 24일, 진안군청서 전달식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스님)가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 진안군수)에 인재 육성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6월 24일 진안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전달식은 지난 2021년 양 기관이 맺은 5년간의 장학금 기탁 협약이 완료된 후에도 이어진 6번째 전달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굳건한 신뢰와 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붓다봉사단에서 국수 나눔을 하며 어르신들이 나눠주신 동전들과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마음을 보탰다”며 “진안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는 “이번 장학금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이 진안 전체를 바라보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큰 사랑의 실천”이라며 “군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1회 평창 부석사 웰니스 축제 성료

6월 20일, 사찰·지역 상생



평창 부석사(주지 설해 스님)는 6월 20일 경내 일원에서 ‘제1회 평창 부석사 웰니스 축제’를 성료했다.

이날 행사는 △찻자리 시음·시식 △정목 스님 강연 △사불과 꽃·기와 그림 그리기 △소리명상 △개성주악 만들기 △아나바다 환경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나방송의 정목 스님은 ‘나눌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했으며, 아나바다 환경장터 수익금은 산간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화의리에 전달됐다.

주지 설해 스님은 “평창 부석사는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곳으로, 그 자체가 치유의 공간”이라며 “많은 이들이 화의리와 부석사를 찾아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마음의 쉼표를 찍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격 강원지사장